



유럽 은행권 대출 회수가 아시아시장에 미치는 영향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은행은 재정위기 여파로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했던 신흥 시장 대출을 급속히 축소하고 있음.

- 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보유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유럽 은행들의 경우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는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임.
 - 유럽중앙은행(ECB)에 따르면 유럽 178개 은행이 11월 22일 하루 동안 ECB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은 금액이 2,490만 유로(약 386억 원)에 달해 일일 기준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(2009년 4월)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- 유럽은행감독청(EBA)은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뱅크가 29억 유로의 자금난에 직면했으며, 정부의 구제금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힘.
- 유럽 은행들의 신흥시장 대출은 2011년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, 재정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7~8월부터 이탈 현상을 보임.
 - 국제결제은행(BIS)은 신흥시장에 대한 유럽 은행의 대출이 2011년 중반까지 약 2조 4,000억 달러로 2005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
- 유럽 은행들의 신흥시장 대출 회수는 손실 만회와 자본 규제에 대응한 자본확충이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신흥시장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.
 -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3억 호주달러 대출 철회로 호주의 세븐웨스트미디어는 당초 19억 5,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¹⁾추진 계획에 차질을 빚음.
 - 유럽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세계 4위 항공업체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는 자금난에 빠짐.
 - 유럽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나이지리아 투자은행인 아프리카파이낸스(AFC)는 2억 달러 규모의 원유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험에 처함.

1)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임.

■ 유럽 은행들의 대출 회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신흥시장은 동유럽지역이며 아시아지역은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
- 체코, 폴란드, 헝가리, 불가리아 등의 동유럽 국가와 칠레는 유럽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자국 GDP의 40%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회수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.
- 아시아지역에 대한 유럽 은행의 대출 규모는 GDP 대비 0~9%로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적음.

〈표 1〉 유럽 은행의 신흥시장 대출 규모

(단위: GDP 대비 %)

대출 규모	국가명
40% 이상	폴란드, 체코, 헝가리, 불가리아, 칠레
20%~39%	루마니아
10%~19%	러시아, 우크라이나, 터키, 멕시코, 브라질
0~9%	중국, 한국, 인도,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이스라엘,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

■ 그러나 최근의 아시아 경제성장이 차입에 더욱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은행의 급격한 대출 회수는 아시아지역의 금융시스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됨.

- 전문가들은 아시아지역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현금 조달 능력이 이미 반감된 상황이라고 분석함.
 - 홍콩, 인도, 대만 증시는 양호한 펀더멘털(fundamental)에도 불구하고 연초대비 약 20% 하락하였고, 기업공개(IPO)는 2011년 현재까지 약 74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여 2010년 같은 기간의 1,59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.
- 세계은행은 최근 위기에 빠진 유럽 은행들이 아시아의 자금을 급격히 회수하면서 아시아 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함.
 - 대만 은행의 경우 유럽 은행 신디케이티드론 철회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함.
 - 인도 기업의 경우 연속적인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국 내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인데 유럽 은행들의 대출 회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더욱 상승하게 됨.
- Wall Street Journal은 아시아지역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나타난 신용경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함.

(Wall Street Journal 11/22, Financial Times 11/22)